

국 어

해설위원: 정 채 영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평]

2017년 지방직 시험의 난이도는 문법 ‘중’, 어휘 ‘상’, 독해 ‘하’로 판정할 수 있다. 영역별 출제 문항 수는 문법 4문제, 어문규정 2문제, 어휘 5문제, 비문학 독해 5문제, 문학 독해 4문제이다.

<문법 영역>

‘문법’은 형태론의 범주 중에서 품사를 묻는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는데 이는 작년과 같은 비율로 출제되었고, 문장론의 범주 중 높임의 유형을 묻는 문제와 의미론의 범주 중 문맥적 의미를 따지는 문제가 1문제씩 출제되었다.

<어문규정 영역>

‘어문규정’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서 각각 1문제가 출제되었다.

<어휘 영역>

‘어휘’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보아 두어야 할 부분은 한자어이다. 한자어의 표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문제의 난도가 높았고, 문학 영역의 한시와 겹치면서 다른 영역에 비해 한자어의 비율이 높아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자어는 변별력 확보의 의도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날마다 반복하여 학습해 두어야 한다. 한편, 관용어와 단어어의 쓰임도 어휘 영역에서 1문제씩 출제되었다.

<비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의 경우 일치하는 정보의 확인 3문제, 글의 논증 구조 1문제, 개요의 작성에서 1문제 출제되었는데, 이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비문학 독해의 유형이므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문학 독해>

‘문학 독해’에서는 허난설헌의 한시와, 정지용의 시, 그리고 시조가 2문제 출제되었다.

2017지방직 시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시험 방향을 제시하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가면서 어휘 영역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날마다 30분 ‘어휘’ 공부라 고득점 확보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문 1.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바닷물이 퍼레서 무서운 느낌이 든다.
- ② 또아리 틈 뱀은 쳐다보지 마라.
- ③ 머릿말에 쓸 내용을 생각해 뒤라.
- ④ 문을 잘 잠궜야 한다.

[정답] ①

[해설]

퍼레서(○): ‘퍼렇다’는 ‘ㅎ’ 불규칙 용언으로 ‘퍼렇다’의 어간 ‘퍼렇-’에 어미 ‘-어서’가 결합하면 ‘퍼레서’가 된다.

[오답 연구]

- ② 또아리(×) ⇨ 또리(○): ‘또리’는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 또는 그런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는 경우 ‘또리’가 표준어이다. 한편, ‘또아리’는 ‘갈퀴발의 다른 끝을 모아 휘감아 잡아맨 부분’을 의미할 때는 쓸 수 있지만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의 의미로는 쓸 수 없다.
- ③ 머릿말(×) ⇨ 머리말(○): ‘머리말’은 사잇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이며, 표준 발음은 [머리말]이다.
- ④ 잠궜야(×) ⇨ 잠가야(○): ‘잠그다, 담그다’ 등과 같이 어간의 끝 음절이 ‘-로’ 끝나는 용언일 경우, 뒤에 어미 ‘-아/-야’가 연결되면 ‘-가’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잠그+아 ⇨ 잠가, 담그+아 ⇨ 담가’ 등과 같이 활용한다.

문 2. 밑줄 친 말의 의미는?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 겨우 상대편을 만나 보았다.

- ①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 ②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 ③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 ④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정답] ②

[해설]

‘말길이 되다’는 ‘남에게 소개하는 의논의 길이 트이다.’를 의미하는 관용구이다. 예문에서 “겨우 만나 보았다”를 토대로 유추하면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를 찾아 낼 수 있다.

[오답 연구]

- ① 말꼬리를 물다: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 ③ 말이 있다: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 ④ 맞(을) 붙이다: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문 3.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씹: 바늘 () 개를 묶어 세는 단위
- 제(劑):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 첩
- 거리: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 개

- ① 80
- ② 82
- ③ 90
- ④ 94

[정답] ④

[해설]

‘씹’은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로, 한 씹은 바늘 24개를 이르는 말이다. ‘제(劑)’는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한 제는 탕약(湯藥) 20첩이다. ‘거리’는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50개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각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더하면 (24+20+50=94) 94가 된다.

문 4.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 ㉠春雨暗西池/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둡한데
- 輕寒襲㉡羅幕/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 愁依小㉢屏風/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 牆頭㉣杏花落/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해설]

이 작품은 규중에서 홀로 지내는 여인의 외로운 심사를 표현한 5언 절구의 한시이다. 앞에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소개하고, 뒤에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선경 후정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시름에 겨워 병풍에 기대어 하루하루 시들어 가는 살구꽃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가 고독감과 함께 젊은 날의 세월을 보내는 아쉬움으로 나타난다. 화자 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삶의 모습이 지는 꽃과 동일시되고 있으므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은 ㉣의 ‘杏花(행화)’가 된다.

[오답 연구]

㉠春雨(춘우)는 시간적 배경이고, ㉡羅幕(낙막)은 공간적 배경이며, ㉢屏風(병풍)은 화자가 기대고 있는 사물일 뿐 화자의 정서와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은 아니다.

<더 알아보기> 허난설헌 ‘봄비’

春雨暗西池 (춘우암서지)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둡한데
輕寒襲羅幕 (경한습라막)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依小屏風 (수의소병풍)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牆頭杏花落 (장두행화락)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 갈래: 한시, 5언 절구(五言絶句)
- 성격: 서정적, 애상적, 독백적
- 압운: 幕(막), 落(락)
- 제재: 봄비
- 주제: 규중 여인의 고독과 외로움
- 특징: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냈다.

문 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 너머 성권농(成勸農)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듯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줄테고
아히야 네 권농 거시나 덩좌슈(鄭座首) 왓다 ㅎ여라

- ①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②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③ ‘언치 노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④ ‘아히’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도,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정답] ③

[해설]

‘언치’는 말이나 소의 안장이나 길마 밑에 깔아 그 등을 덮어 주는 방석이나 담요이다. ‘언치 노하’는 안장을 갖추지 않고 방석만을 얹어서 타고 간다는 뜻이므로, 이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연구]

- ① 재 너머 성권농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누워 있는 소를 발로 차서 성급히 달려가는 모습에서 술과 벼를 좋아하는 작가의 풍류를 알 수 있다.
② ‘박차(발로 차서)’와 ‘지줄테고(놀러 타고)’에서 생동감과 해학을 느낄 수 있다.
④ ‘아히’는 감탄사의 기능을 하며, 문장을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더 알아보기〉 정철, ‘재 너머 성권농(成勸農) 집의~’
•현대어 풀이
고개 너머 사는 성 권농 집의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누워 있는 소를 발로 차서 일으켜 언치만 얹어서 놀러 타고,
아이야, 네 권농 어른 계시나? 정 좌수 왓다고 여쭙어라.
•성격: 풍류적, 전원적
•주제: 향촌 생활의 풍류와 흥취
•특징: 권농의 집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생략을 통해 경쾌하게 서술하였으며,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멋스럽게 구사하였다.

문 6.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 지루한 ㉠ 장광설로 인해 관중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 정보화 사회일수록 ㉡ 유연비어가 떠돌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 변명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 ㉡ ㉢

- ① 長廣舌 流言蜚語 辨明
② 長廣舌 流言非語 辯明
③ 長廣說 流言蜚語 辯明
④ 長廣說 流言非語 辨明

[정답] ①

[해설]

- ㉠ 장광설(長廣舌: 길 장, 넓을 광, 혀 설):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또는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 유연비어(流言蜚語: 흐를 유, 말솜 언, 바퀴 비, 말솜 어):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 변명(辨明: 분별할 변, 밝을 명):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또는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힘.

[오답 연구]

- 說: 말솜 설
•非: 아닐 비
•辯: 말솜 변

문 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老主人의 腸壁에
無時로 忍冬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風雪소리에 잠착하다.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얏다.

-정지용, ‘忍冬茶’-

- ①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②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④ ‘잠착하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다.

[정답] ④

[해설]

‘잠착(潛着)’의 ‘잠(潛)’은 ‘잠기다, 가라앉다’의 뜻을, ‘착(着)’은 ‘붙다’의 뜻을 가진다. ‘잠착하다’는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몰하게 쓰다.’는 뜻으로, 문맥적 의미로 볼 때 ‘귀를 기울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바깥의 눈바람 소리에 화자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므로, ‘여러모로 고려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연구]

- ① 흰 눈이 내린 겨울 깊은 ‘산중(山中)’이 공간적 배경이므로, 이는 적절한 설명이다.
②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에서는 붉은색의 시각적 이미지가,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에서는 푸른색의 이미지가 사용되어, 붉은색과 푸른색의 시각적 대조가 나타난다.
③ “老主人(노주인)의 腸壁(장벽=창자벽)에 無時(무시)로 忍冬(인동)삼긴 물이 나린다.”는 것은 노 주인이 인동차를 마시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더 알아보기〉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주제: 정신적 고결함을 지키는 탈속적이고 견인적인 삶
•특징: 감정을 절제하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하였다. 또 색채의 대조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문 8.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은?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요체를 +로 표시한다.

- ① [주체 -], [객체 +], [상대 -]
② [주체 +], [객체 -], [상대 +]
③ [주체 -], [객체 +], [상대 +]
④ [주체 +], [객체 -], [상대 -]

[정답] ①

[해설]

- 이 문장에서 주어는 ‘내가’인데, 주어를 높이지 않았다. 주체 높임법은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 주체]이다.
• 이 문장에서 객체는 ‘선생님께’인데, 선생님이라는 대상을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법은 [+ 객체]이다.
• 이 문장에서 청자는 ‘숙희’인데, 청자에게 ‘다’라고 하여 종결어미에 반말체를 쓰고 있다. 따라서 상대 높임법은 [- 상대]이다.

[더 알아보기]

- 주체 높임법: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즉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용언의 어간+선어말 어미 ‘-(으)시-’, 주격 조사 ‘께서’의 사용, 주어 명사+‘님’, 높임을 나타내는 단어의 사용(계시다, 주무시다) 등으로 실현된다.
• 객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특수한 어휘의 사용(빔다, 드리다, 여쭙다/여쭙다), 조사 ‘에게’ 대신 ‘께’의 사용 등으로 실현된다.
• 상대 높임법: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나타난다.

문 9. '시'에 대한 견해 중에서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형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미(美)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전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 그 곡을 혐오하듯 미(美) 또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 ①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 ② 시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 수 있다.
- ③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 ④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칸트의 입장은 세 번째 문장 “미(美)에 대한 자율적 견해”에 나타나 있다. 이와 상대되는 입장은 미(美)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미(美)에 대한 자율적 견해”란 목적성이 없는 순수성의 영역이 되는 것이므로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가 답이 된다.

[오답 연구]

- ②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거나 개혁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순수성의 영역에서 벗어난 입장이다.
- ③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미를 목적론과 연관시킨 것이므로, 이는 순수성의 영역에서 벗어난 입장이다.
- ④ 사회 상황을 알아야 시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순수성의 영역에서 벗어난 입장이다.

문 10. 밑줄 친 말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때는 한창 바벌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 파적 나을 놈은 생겨나도 많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 것이 더러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 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있대야 남의 결방이요 잠은 ㉡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버를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강산에 늘어 놓인 곡식이 말짱 뉘 것이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 두고 일이 다 무슨 ㉢ 난장 맞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이나 걸려서 구메밥으로 ㉣ 사관을 틀었다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뉘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

- 김유정, 「만무방」 중에서 -

- ① ㉠: 심심풀이
- ② ㉡: 안잠
- ③ ㉢: 몰매
- ④ ㉣: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정답] ②

[해설]

① ‘새우잠’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주로 모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을 의미하며, ‘안잠’은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오답 연구]

- ① 파적(破寂): ‘파(破)’는 ‘깨뜨리다’의 뜻을 ‘적(寂)’은 ‘고요하다’의 뜻을 지니므로, ‘파적’과 ‘심심풀이’는 같은 맥락을 가진 어휘가 된다.
- ㉢ 난장(亂杖): ‘난(亂)’은 ‘어지럽다’의 뜻을, ‘杖(杖)’은 ‘지팡이, 때리다’의 뜻을 지닌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벼들어 때리는 때로 ‘몰매’라고도 한다.
- ㉣ 사관(四關): ‘관절(關節)’은 뼈와 뼈를 결합하는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사관(四關)’은 네 개의 관절을 뜻하며, 한의학 용어로 양쪽의 팔꿈치와 무릎 관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사관을 트다’는 것은 ‘사관에 침을 놓다’는 관용구로 ‘체하였을 때는 사관을 트고 중완 침을 놓으면 한결 나아진다.’처럼 쓰인다.

<더 알아두기> 김유정 「만무방」

「만무방」은 ‘염치가 없이 막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소설의 초반부를 읽으면 「만무방」은 응칠이의 부랑하는 삶을 빗대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부채 때문에 농촌을 떠나 도박과 절도를 일삼는 응칠이, 모범적 농민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자기 논을 버려 훔치는 응오, 성실하게 일해도 남는 것이 없으니 열심히 일하기를 포기하고 도박이나 금광 등 일확천금을 노리는 농촌의 사람들이 모두 「만무방」인 셈이다. 즉, 이 작품은 농촌의 모순과 피폐함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 주는 인물들을 제시하며 1930년대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만무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에 만무방이 된다는 것이다.

문 11. 다음 시조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내히 조타 호고 놈 슬흔 일 호지 말며
 놈이 혼다 호고 義아니면 좇지 말니
 우리논 天性을 직히여 삼긴 대로 호리라

- ① 率性
- ② 善交
- ③ 遵法
- ④ 篤學

[정답] ①

[해설]

종강의 “우리논 天性을 직히여 삼긴 대로 호리라”라는 구절은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지키며 생긴 대로 살아가리라.’고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천성을 지키는 삶’으로 이와 관련된 어휘는 ‘율성(率性)’이다. 率性(율성: 거느릴 술, 성품 성)은 ‘타고난 성질. 또는 천성을 좇음.’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연구]

- ② 善交(선교: 착할 선, 사귄 교): 잘 사귀.
- ③ 遵法(준법: 좇을 준, 법 법):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킴.
- ④ 篤學(독학: 도타을 독, 배울 학): 학문에 충실함.

<더 알아두기> 변계량 「내히 조타 호고~」

내가 좋아 한다 해서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며,
 남이 한다고 해서 옳은 일이 아니거든 따라 하지 말라.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지키며 생긴 대로 살아가리라.

문 12.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 것은?

- ①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뇌연히 대중 앞에 나섰다.
- ②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어내고 있었다.
- ③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닫나게 되었다.
- ④ 그 사람은 허구한 날 팔자 한탄만 한다.

[정답] ③

[해설]

깨닫나게(○): ‘깨닫다’는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달거나 분명히 알다.’는 의미이다.

[오답 연구]

- ① 뇌연히(×) ⇨ 버젓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 또는 남의 촉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번듯하게.
- ② 뒤어내고(×) ⇨ 뒤져내고(○): ‘살살이 뒤져서 들춰내거나 찾아내다.’의 뜻으로 쓰는 말은 ‘뒤어내다’가 아니라 ‘뒤져내다’이다.
- ④ 허구한(×) ⇨ 허구한(○):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어휘는 ‘허구하다’이며, ‘허구한’의 꼴로 쓰인다. 따라서 ‘허구한’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문 13.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 강도(強度)를 살펴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 일조(日照)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 조지훈, '지조론' 중에서 —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 '하루아침'을 의미하는 '일조'는 '一朝(한 일, 아침 조)'로 써야 한다. '일조'는 주로 '일조에'의 꼴로 쓰여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그녀는 일조에 과부 신세가 되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쓰임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日照(일조: 날 일, 비출 조)'는 '햇볕이 내리쬐'를 의미하는 말이다.

[오답 연구]

- ㉠ 확집(確執: 굳을 확, 잡을 집): 자기의 의견을 굳이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
㉡ 위의(威儀: 위엄 위, 거동 의):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또는 예법에 맞는 몸가짐.
㉢ 강도(強度: 굳셀 강, 법도 도): 센 정도

문 14.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개나리꽃이 ㉠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 출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 없는 농지거리, 별들의 잉잉 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해설]

㉠ '흐드러지게'의 기본형은 '흐드러지다'이며, 품사는 형용사이다.

㉡ '출만한'의 기본형은 '출만하다'이며, 품사는 형용사이다.

㉢ '없는'의 기본형은 '없다'이며, 품사는 형용사이다.

그러므로 같은 품사인 형용사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 ㉢, ㉤'이다.

[오답 연구]

- ㉡ '찍은'의 기본형은 '찍다'이며, 품사는 동사이다.
㉣ '설레는'의 기본형은 '설레다'이며, 품사는 동사이다.

<더 알아보기>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움직임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 기본형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니-',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이다.
-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나 청유형 어미 '-자',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려'나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이다.

문 15.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소수 특정 부분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확장해 가며 차츰 폭 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은 '정상 학'이라고 부른다.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 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연구는 이제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상 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 기법 등이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돼 있다는 것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하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 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좇아가지는 않으며,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연구가 고작 예측된 결과를 좇아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되는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쿤은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안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연 현상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서의 예측 결과와 실제의 현상을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 풀이이다.

- ①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②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③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
④ 예측된 결과만을 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

[정답] ②

[해설]

밑줄 친 '정상 과학의 시기'에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답은 이어지는 문장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에 나타나 있다.

[오답 연구]

- ① 2문단에 이 시기의 연구는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이라고 했으므로, '상반된 시각의 학설로 인한 다양성'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에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 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5문단에서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예측이 달성되는 과정은 의문 속에 있"으므로,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4문단에서 제기한 질문에 답을 하였다. 따라서 예측된 결과만을 좇을 수밖에 없어서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문 16. '잡다'의 유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어	예문
죽이다	㉠
쥐다	㉡
어렵하다	㉢
진압하다	㉣

- ① ㉠: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② ㉡: 그들은 먹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③ ㉢: 술집 주인은 손님's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
 ④ ㉣: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정답] ③

[해설]

'어렵하다'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다'는 뜻을 가진다. 이와 유의어로서의 '잡다'는 '짐작하여 헤아리다.'는 의미로 쓰여야 한다. 그런데 ㉢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에서 '잡다'는 '담보로 맡다.'는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따라서 '어렵하거나 짐작하여 헤아리다.'는 의미로 쓰인 '이 물건의 가치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원은 넘을 것이다.' 정도가 들어야 한다.

[오답 연구]

- ㉠에서 '잡다'는 '짐승을 죽이다'는 의미이다.
 ㉡에서 '잡다'는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는 의미이다.
 ㉣에서 '잡다'는 '기세를 누그러뜨리다.'는 의미이다.

문 17.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빛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내야 한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이들은 상당 시간 물 밖에 노출되어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패각과 덮개 판을 꼭 닫은 채 물이 밀려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 ① 조간대에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②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답] ②

[해설]

2문단에서 조간대의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라고만 진술했을 뿐,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오답 연구]

- ① 3문단의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3문단의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④ 1문단의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추슬러야 한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문 18. 다음의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론: 최근의 수출 실적 부진 현상

본론: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

1. 가격 경쟁력 요인

ㄱ. 제조 원가 상승

ㄴ. 고금리

ㄷ. 환율 불안정

2. 비가격 경쟁력 요인

ㄱ.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

ㄴ. 품질 개선 부족

ㄷ. 판매 후 서비스 부족

ㄹ. 납기의 지연

결론: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 ① 정부가 수출 분야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③ 기업이 연구 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이 개요의 서론에서는 '수출 실적 부진 현상'을, 본론에서는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을, 결론에서는 '분석 후 방안 제시'를 각각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한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술이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연구]

- ① 이 글의 논지는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과 방안 마련'이므로 '수출 분야 산업 지원'은 주제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은 서로 관련이 없다.
 ③ 본론 2의 ㄱ(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과 ㄴ(품질 개선 부족)에만 해당하므로 주제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문 1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 할머니께서는 ㉤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지요. ㉦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답] ③

[해설]

㉢ ‘할머니’와 ㉦ ‘당신’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 연구]

- ① ㉠ ‘그쪽’은 대화의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고 ㉡ ‘저’는 1인칭 대명사이다.
 ② ㉡ ‘우리’는 ㉢ ‘저’를 달리 이르는 말이고, 여기에는 ㉢ ‘할머니’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 ‘본인’은 바로 앞의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이고, ㉣ ‘당신’은 대화의 ‘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 20.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은?

㉠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 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① ㉠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② ㉡은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③ ㉢은 ㉠, ㉡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④ ㉤은 ㉢, ㉤에 대한 근거이다.

[정답] ③

[해설]

㉢은 ‘그러나’라는 접속어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의 ㉠, ㉡에서는 ‘동물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그러나’ 이후의 ㉢에서는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은 ㉠, ㉡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은 적절하다.

[오답 연구]

- ㉠: ‘동물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 글의 화제이다.
 ㉡: ‘동물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의 상술에 해당한다.
 ㉢: ㉢과 함께 새로운 논점의 근거에 해당한다.
 ㉤: ㉢과 ㉤을 근거로 제기한 글 전체의 결론이자 주장이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①	②	④	④	③	①	④	①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②	②	③	②	④	③	③